



제목	Ancient Persia in Western History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I. B. Tauris
발행일	2014. 10. 2.
저자	Sasan Samiei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320
ISBN 또는 ISSN	978-1780764801

내용 요약

기원전 6세기에 고레스(또는 키루스) 대왕이 세운 아케메네스 제국(Achaemenid Empire)은 아시아와 중동, 북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이였다. 하지만 이 최초의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은 기원전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침략을 받은 이후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과 잦은 전쟁을 하면서 세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리스의 수중에 들어 간다. 그 결과 페르시아 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이식된 헬레니즘 문화에 거부감을 보이고 문화의 확산을 반대한다.

서양사에서 고대 페르시아는 서구적 시각에서 임의적으로 재단되어 있다. 말하자면 서구에서는 그레코-페르시아 전쟁을 동서양 전쟁의 첫 라운드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데, 그 근거에는 그레코-페르시아 전쟁을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동양'과 광범위하게 계몽된 '서구'간의 충돌로 이해하면서 동양이 서구에게 패배하고 서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서구 역사 속 고대 페르시아』의 저자 사미이(S. Samiei)는 이 결정적인 시대에 대해 왜곡하고 오해하는 서구의 역사 서술 방식을 면밀하게 분석한다. 사미이는 고전주의와 헬레니즘 역사를 숭배했던 기본(E. Gibbon)과 괴테의 작업을 마이어스(J. L. Myres)와 같은 작가의 작업과 대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케메네스 시대를 구성하는 문화 간 조우와 교류를 탐구하는 것이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역사 연구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